



공포가 공포를 부르는 국면 탈출

이번에는 진짜? 낮아지는 전쟁 위험, 미국채10년 4.5% 하회

번번히 기대와 실망의 연속이었던 미-이 전쟁 종료 가능성 증대. 종전 MOU 최종 사인만 남았다는 소식에 WTI 유가는 예상보다 빠르게 85달러를 하회, 증시와 채권시장까지도 안정. 다만, 양호한 5월 고용 및 미국 물가 수준이 높아진 것에 대한 경계로 미국채10년 4.4%대에서 추가하락은 제한

글로벌 금리안정을 위한 1차 관문인 종전이 확인되면, 2차로 월드컵 이후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는 과정이 중요할 것. 지난 주 ECB 금리인상 이후 유럽금리 아직 매패성향을 유지한 라가르드 총재발언으로 다소 반등했다고 해도 경제둔화 가능성에 장기금리 상대적 안정 흐름 이어가고 있어

한국 통화정책 과도한 긴축우려 완화, 기존 7월과 10월 인상 전망 유지

6월 초 환율이 불안해지자 국내 통화긴축 관련 다양한 루머가 확산. 6월 임시금통위 인상 및 7월 50bp 인상의 빅스텝까지 '공포가 공포를 부르는 국면' 연출. 지난 주 정부와 국민연금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조치가 효과를 발휘, 원/달러 환율이 1510원대까지 안정되면서 과도한 긴축 우려는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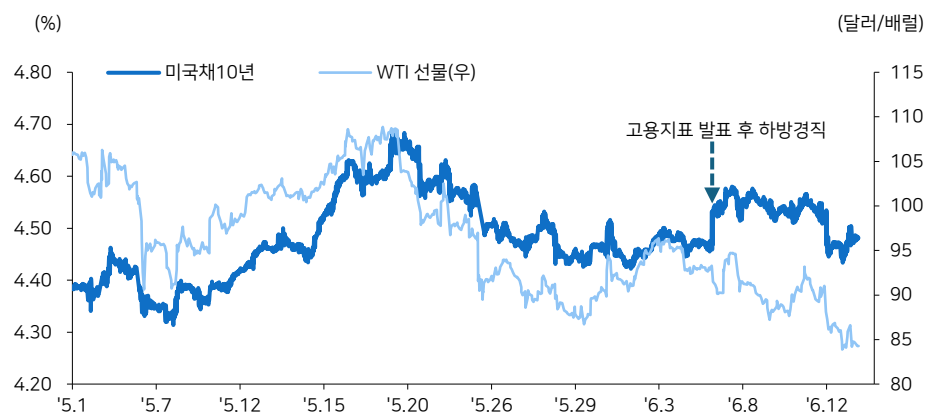
외환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 빚투 등 금융안정 저해 요인들 산재해 있으나, 창립기념사 한은총재 발언은 5월 제시된 점도표 기대를 크게 벗어날 정도의 내용 아니었다는 판단. 우리는 7월과 10월 연내 2차례 기존 인상 전망을 유지, 내년 3.50% 터미널 레이트 확정 여부는 3분기까지 확인 필요하다는 생각

채권전략

Analyst 윤여삼
yeosam.yoon@meritz.co.kr

RA 김영준
zerojoonk@meritz.co.kr

Chart of the Week: 종전 기대로 유가 큰 폭 안정되었지만, 미국채10년 제한적 추종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이번에는 진짜? 낮아지는 전쟁 위험, 미국채10년 4.5%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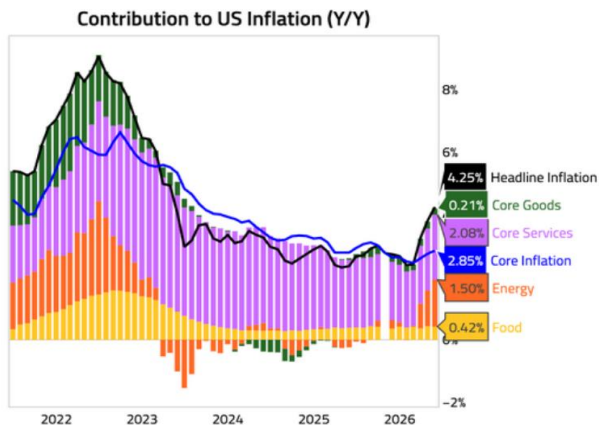
- 5월 고용지표 호조 이후 물가마저 예상을 상회할 경우 연준이 실제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 확산
- 그렇게 확인된 CPI와 PPI 결과는 예상에 부합. 일부 근원물가 중심 예상을 다소 하회하면서 통화정책의 인내심을 유지할 수준 정도는 되는 것으로 판단
- 미국 5월 CPI에서 에너지 관련된 물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역에서 물가상승 부담이 크게 확산되지 않음<그림 1>. 헤드라인 4.25%대비 근원물가 2.85%로 공급물가 충격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확인
- 재화물가는 전년대비 4%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재화물가가 전년대비 1.1% 상승에 그침<그림 3>. 서비스 물가상승세도 아직은 완만한 경로로 2차경로 확산 제한적 판단

그림1 미국 5월 CPI, 예상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2차경로 확산 아직은 제한적

	Seasonally adjusted changes from preceding month							Un-adjusted 12-mos. ended May 2026
	Nov. 2025	Dec. 2025	Jan. 2026	Feb. 2026	Mar. 2026	Apr. 2026	May 2026	
All items.....	-	0.3	0.2	0.3	0.9	0.6	0.5	4.2
Food.....	-	0.7	0.2	0.4	0.0	0.5	0.2	3.1
Food at home.....	-	0.6	0.2	0.4	-0.2	0.7	0.1	2.7
Food away from home ¹	-	0.7	0.1	0.3	0.2	0.2	0.3	3.5
Energy.....	-	0.3	-1.5	0.6	10.9	3.8	3.9	23.5
Energy commodities.....	-	-0.3	-3.3	1.1	21.3	5.6	6.7	40.6
Gasoline (all types).....	2.7	-0.3	-3.2	0.8	21.2	5.4	7.0	40.5
Fuel oil.....	-	-0.8	-5.7	11.1	30.7	5.8	3.8	58.9
Energy services.....	-	1.0	0.2	0.2	0.4	1.6	0.4	5.3
Electricity.....	-	0.2	-0.1	-0.7	0.8	2.1	0.6	5.9
Utility (piped) gas service.....	-	3.7	1.0	3.1	-0.9	-0.1	-0.5	3.0
All items less food and energy.....	-	0.2	0.3	0.2	0.2	0.4	0.2	2.9
Commodities less food and energy.....	-	0.0	0.0	0.1	0.1	0.0	-0.1	1.1
New vehicles.....	0.2	0.0	0.1	0.0	0.1	-0.2	-0.3	0.2
Used cars and trucks.....	0.1	-0.9	-1.8	-0.4	-0.4	0.0	0.1	-2.0
Apparel.....	-	0.3	0.3	1.3	1.0	0.6	0.3	4.8
Medical care commodities ¹	-	0.3	-0.1	0.0	-1.0	-0.4	-0.7	-1.8
Services less energy services.....	-	0.3	0.4	0.3	0.2	0.5	0.3	3.4
Shelter.....	-	0.4	0.2	0.2	0.3	0.6	0.3	3.4
Transportation services.....	-	0.4	1.4	0.2	0.6	0.3	-0.6	4.1
Medical care services.....	-	0.4	0.3	0.6	0.0	0.0	0.5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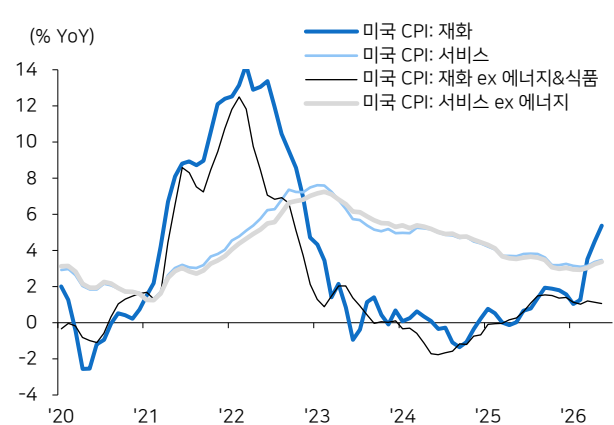
자료: US BLS

그림2 근원물가 상승 억제, 종전으로 물가안정 기대 높아질 것



자료: US BLS, Bloomberg Economics

그림3 에너지 제외 재화물가 상승세 제한, 수요압력 높지 않아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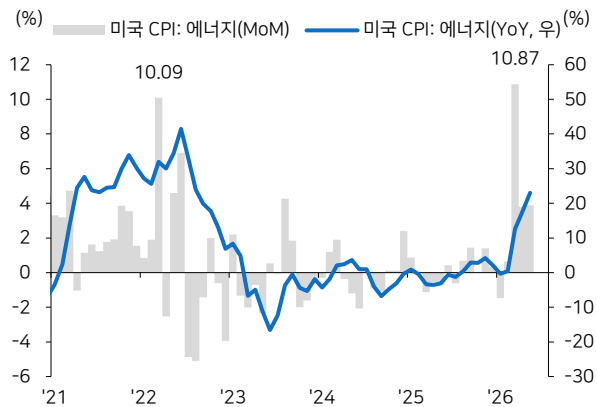
- 에너지는 전월대비 3.88%, 전년대비 23.0% 급등하면서 물가상승을 주도<그림 4>.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만큼은 아니지만 현재 공급충격으로 미국 CPI 4%대 상승을 주도한 것은 분명

- 그렇지만 종전이 확정된다면, WTI 유가가 80달러 중반을 하회한 것을 반영 에너지 물가부담 역시 큰 폭 완화될 전망

- 그럼에도 2022년 당시 수요견인 물가상승세가 강했던 것과 현재는 큰 차이점을 나타냄. 당시 팬데믹으로 과잉유동성이 공급된 상황에서 노동공급 부족으로 임금 상승세가 강해 수요물가 견인력이 공급이상 강하게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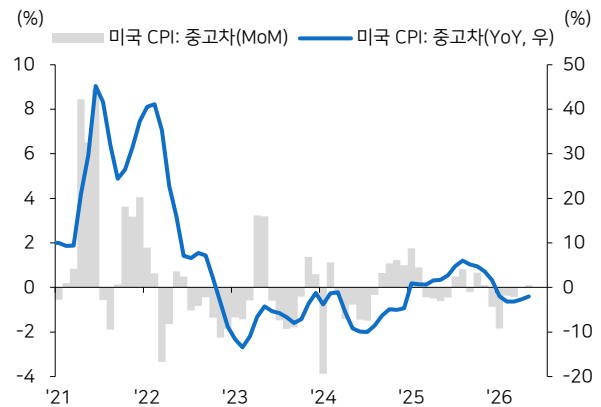
- 2021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중고차와 자동차 관련 물가는 당시 전쟁이 아니어도 물가상승 압력이 누적된 것을 입증<그림 5>. 반면, 현재 국면에서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 수요가 눌러 있어 물가기여도 낮게 평가. 이번 5월 물가에서 자동차 보험료는 전월대비 -1.7%를 기록함

그림4 가솔린 고공행진으로 에너지 물가 긴장 높게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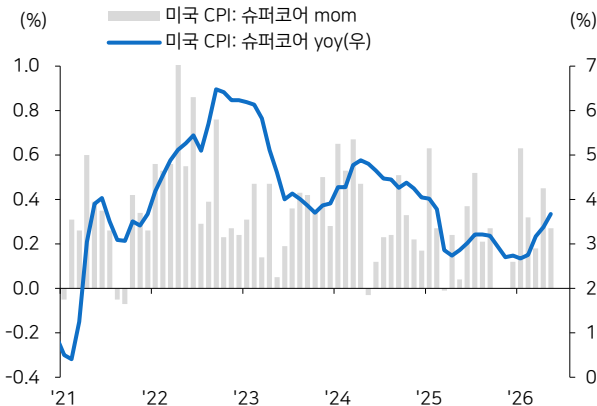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자동차 관련 물가 대부분 하락, 수요는 쉽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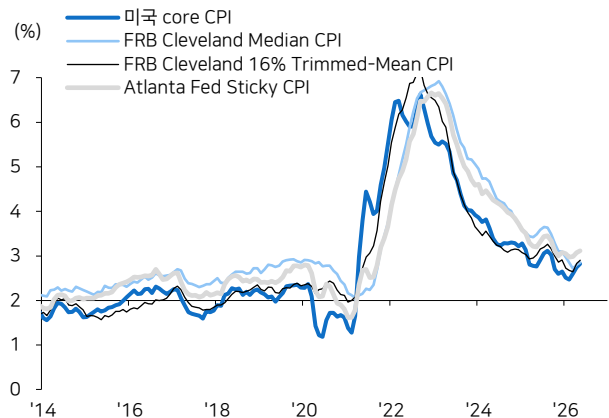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슈퍼 코어 전월대비 0.27% 상승, 전년대비 3%대 후반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추세물가 지표 반등하고 있지만 일단 기울기 완만



자료: AT Fed,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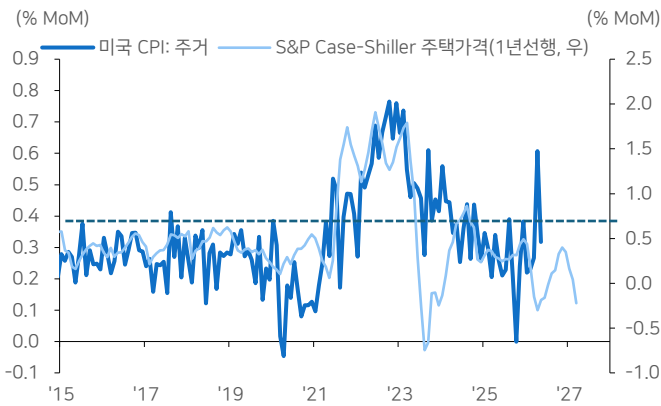
- 물가변동성이 큰 부분을 제외 핵심물가라고 평가할 수 있는 슈퍼코어물가는 전월대비 0.27% 상승으로 헤드라인보다 상승폭이 적음(그림 6)

- 추세물가를 나타내는 지표들 역시 고개를 들었지만, 근원물가 상승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아직은 2%에서 통화정책 당국의 인내심을 유지하게 할 것(그림 7)

- 미국 CPI에서 비중이 가장 큰 주거비는 이달에도 0.3% 늘어 상승폭이 적지 않았지만, 섯다운의 통계왜곡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추가부담은 제한적(그림 8, 9). 올해 미국 주택가격의 하락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주거비 안정기대 높아 하반기 물가안정 기대에 주요한 역할을 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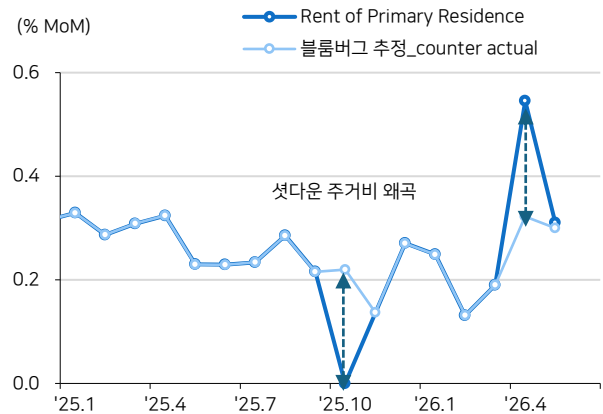
- 5월 생산자물가에서 헤드라인은 전월대비 1.1%로 반도체 가격상승에 따른 컴퓨터와 가전 등의 물가부담이 일부 강화될 공산이 크나(그림 10), 근원물가가 전월 대비 0.4%로 예상치 0.5%를 하회한 부분은 긍정적 평가(그림 11)

그림8 주거비 상승세 반락, 주택가격 하락 방향성 쫓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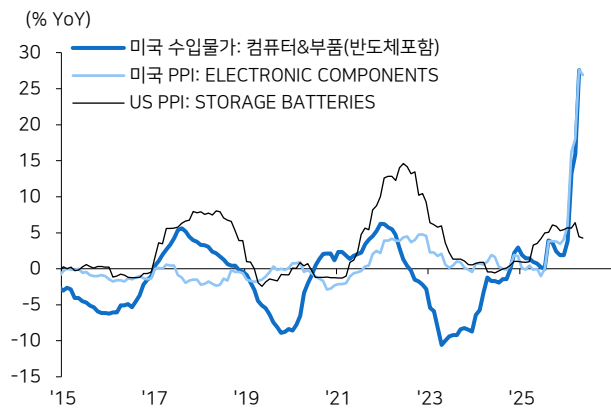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섯다운 주거비 일시적 교란요인 이달부터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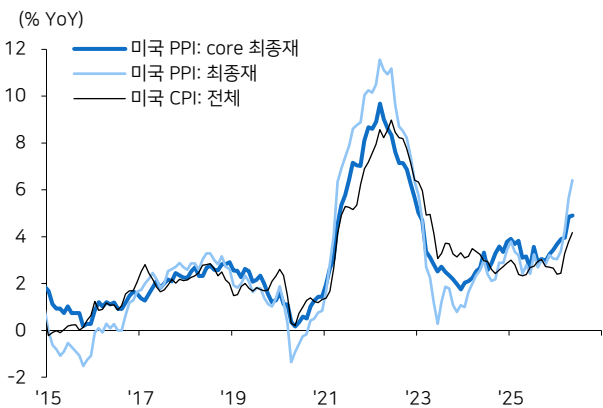
자료: US BLS, Bloomberg Economic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칩플레이션 부담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해도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근원 생산자물가 역시 예상을 하회, 공급충격 우선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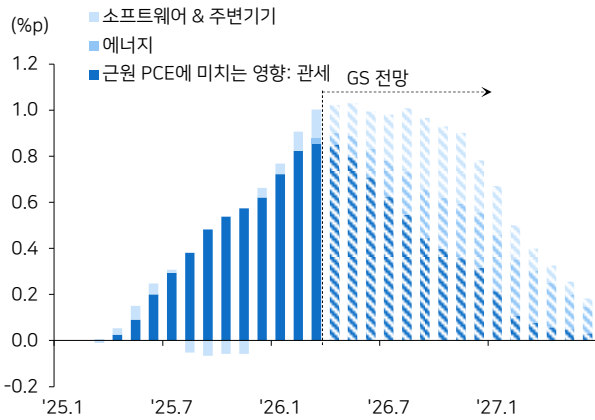
- 우리는 하반기 채권인덱스를 통해 미국 물가는 에너지와 칩플레이션으로 0.7%p 정도 상향되는 부담이 존재하나 간과하고 있는 관세완화 부분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안정경로를 회복할 것으로 추정(그림 12)

- 관세 위헌결정으로 실효관세율은 10% 수준으로 낮춰진데다, 작년4월 해방의 날 이후 1년이 경과 기저가 낮아져 하반기 미국물가 안정을 주도할 것

- 2022년 인플레이션의 퍼펙트스톰은 전쟁의 에너지발 공급물가 충격 & 막대한 수요견인력이 수반된 결과였음. 때문에 당시 트루플레이션이 추정하는 일간 물가가 실제 CPI를 선행 가파르게 올랐으나 이번 국면은 2% 내외에서 오르지 않음(그림 13). 소득증가에 따른 수요발 2차 경로 확산 제약되는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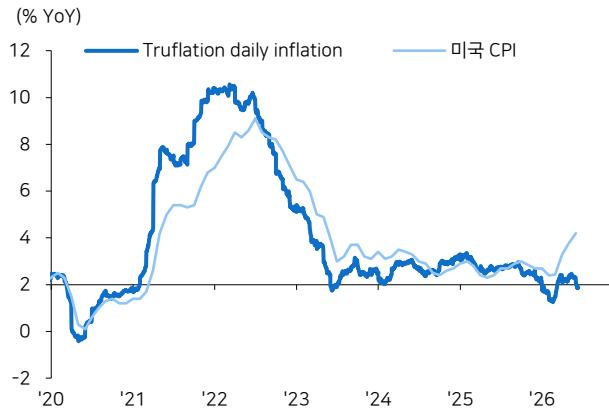
- BEI가 최근 다시 역사적 평균을 하회하는 것 역시 연관(그림 14). 현재 인플레이션이 진성이었다면 물가채를 통해 헛지 혹은 돈을 벌려고 했어야 하나 미약. 뉴욕연준 기대인플레 서베이 역시 2022년 비교할 수 없음(그림 15)

그림12 종전과 관세발 물가 안정, 하반기 정책전환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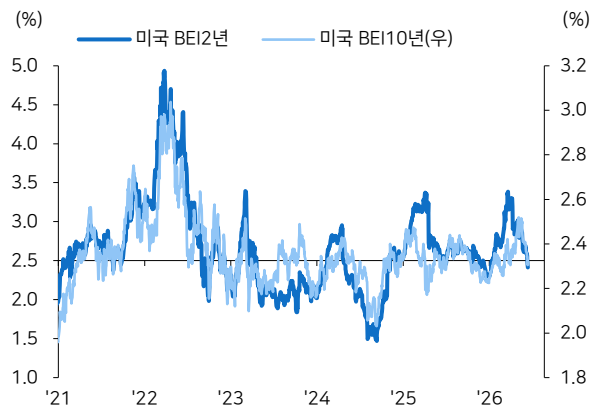
자료: US BLS, G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2022년과 달리 일간 생활물가는 전혀 오르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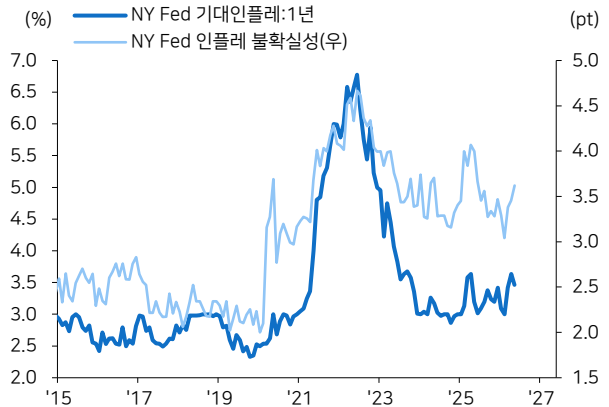
자료: US BL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단기 장기 BEI 모두 균형수준으로 회귀하고 있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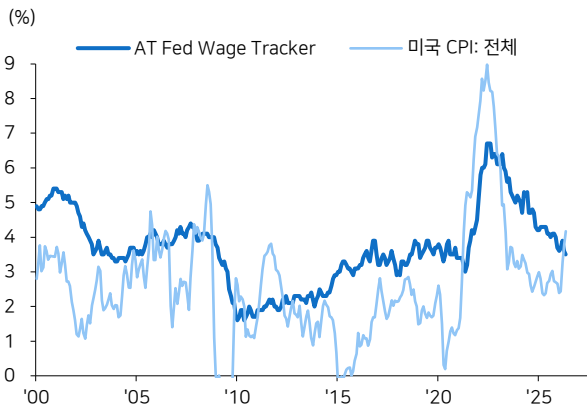
그림15 뉴욕연준 기대인플레 서베이 역시 확산 제한적



자료: NY Fe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표면적 미국 물가가 4%대로 올라서면서 연준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매과 위원들의 근거가 되나 현재 수요자극 2차경로 확산 증거는 없음. 오히려 종전 이후 에너지 가격안정시 물가안정 기대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 증대
- 미국 CPI가 4%를 넘어선 것과 달리 미국 임금상승률은 3% 초반으로 둔화되고 있어 미국 가계의 구매력이 약화될 우려 증대<그림 16>. FT를 포함 다수 메이저 외신들은 현재 물가부담이 선진국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표명
- 우리가 올해 연말 연준이 금리인하를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는 핵심 또한 미국중심 소비둔화임. 현재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진입, 실질소득 역시 부동산 가격하락 및 주가상승 제약 등으로 2024년 연말대비 마이너스임<그림 17>
- 세금환급 및 월드컵 특수로 5월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5%로 양호한 숫자가 예상되나 미국 가계는 질적(soft data)인 고용위축으로 소비여력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그림 18, 19>

그림16 물가가 다시 올라도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수요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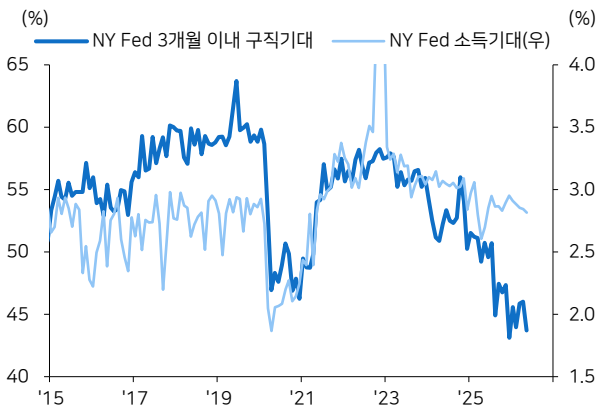
자료: AT Fed,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미국 실질임금 마이너스, 소비지출 탄력 둔화 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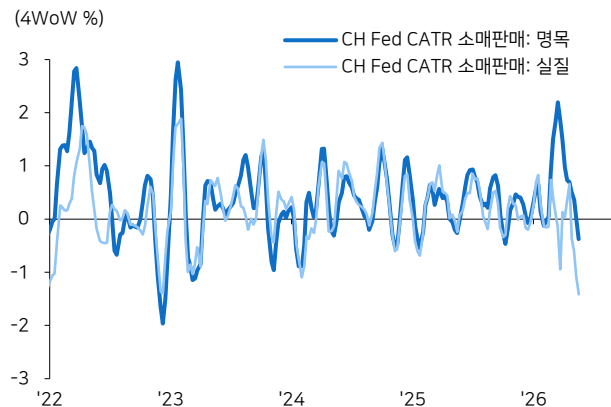
자료: US BLS, US BE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일자리 기대 낮아지면, 소득기대도 둔화될 수 있어



자료: NY Fe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소매판매 선행지표, 실질소비 위축 명목까지 끌어내려



자료: CH Fe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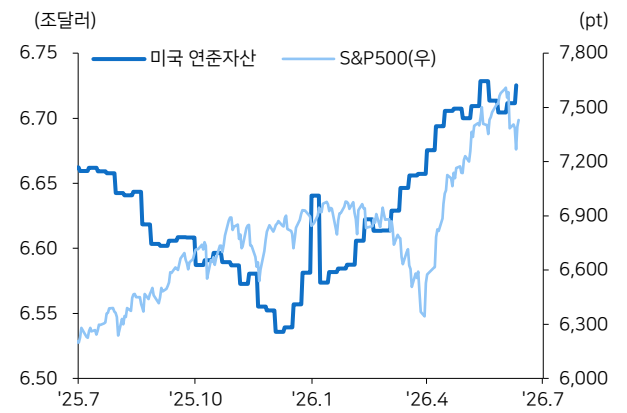
- 이번 주 17일(수) 예정된 6월 FOMC는 워시 신임의장의 데뷔전임에도 생각보다는 '소문난 잔치'가 아님. 신임의장의 성향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자리이지만, 현재 여건이 강하게 정책방향을 시사하기 어려운 국면

- 워시 의장이 이전부터 강조했던 연준의 유동성 직접조절마저 RMP를 통해 현재 월간 100억달러 자산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조차도 이번 회의에 중단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그림 20>

- 미국 물가는 절대숫자가 높고 아직 정점을 확인했다고 말하기 어려움. 성장을 전망이 최근 낮아졌다고 해도 올해 2%를 넘길 전망이다데다 최근 고용까지 안정되고 있어 경기측면에서 통화정책 부담 역시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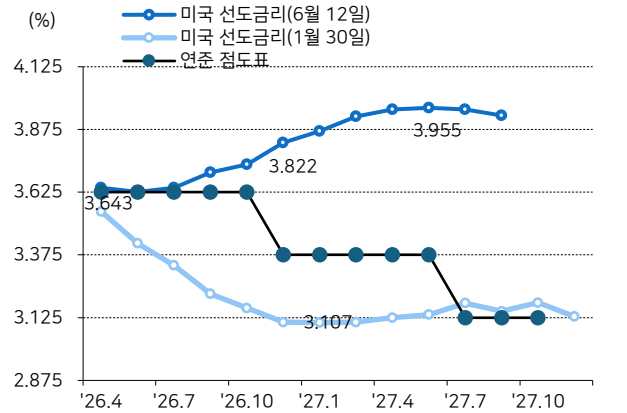
- 선도금리 반영 시장기대치는 연초 올해 2차례 인하 전망에서 연내까지는 아니나 내년 상반기까지 1차례 정도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반영 중<그림 21>. 이를 반영하여 연준의 점도표 역시 상향이 불가피할 것<그림 22>

그림20 워시시장 데뷔전, 대차대조표 축소 쉽지 않은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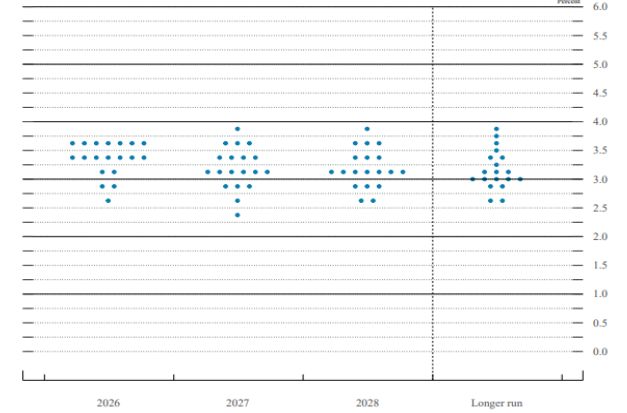
자료: Fed,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1 연초 2차례 인하에서 이제 내년 상반기 인상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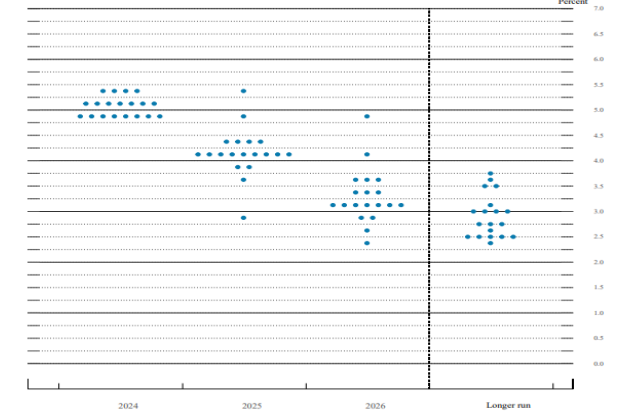
자료: Fed,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2 2026년 3월 점도표, 상향은 불가피해도 인상은...



자료: F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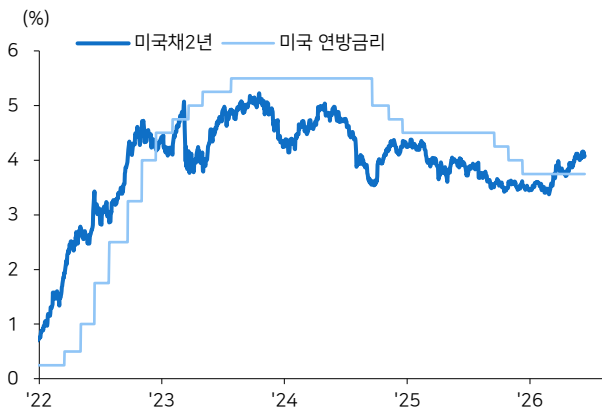
그림23 2024년 6월 점도표, 당해 1번 인하 밖에 안된다고 해



자료: Fed

- 그렇지만 policy watcher로 오랜 기간 연준을 지켜본 필자 입장에서 점도표는 현재를 설명하는 잣대이지 미래를 내다보는 수정구슬이 아님
- 필자가 가장 강렬히 기억하는 2024년 6월 끈적거리는 물가(sticky inflation)로 당해 금리인하는 1차례 밖에 불가하다는 것이 당시 점도표였음(그림 23). 그렇지만 3분기 삼률이 작동, 고용위축이 현실화되자 9월 빅컷 포함 100bp 인하 단행
- 작년에도 관세부과로 물가가 올라 금리인하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6월 FOMC 전후 강화되었으나 75bp 인하. 우리는 상기했듯이 물가안정과 미국 가계소비 둔화를 근거로 올해 12월 FOMC에서는 연준이 다시 인하를 할 것으로 전망
- 물론 이번 회의에서는 'easing bias'마저 제거하면서 통화긴축 기조가 강화될 것이나, 연방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유가가 아니라 임금이었음(그림 26, 27). 현재 미국 고용의 질적인 둔화와 소비위축은 다시 연준의 인하 사이클을 지지할 것

그림24 미국채2년 여전히 4% 상회, 인상 우려 반영 중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5 선도금리 역시 미국채10년 4.3% 하회를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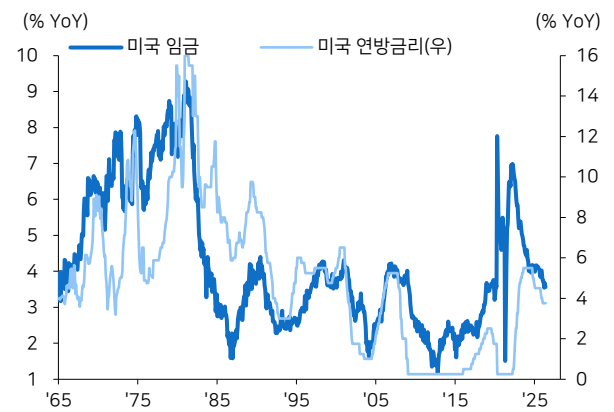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6 연방금리는 유가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료: Bloomberg, Fe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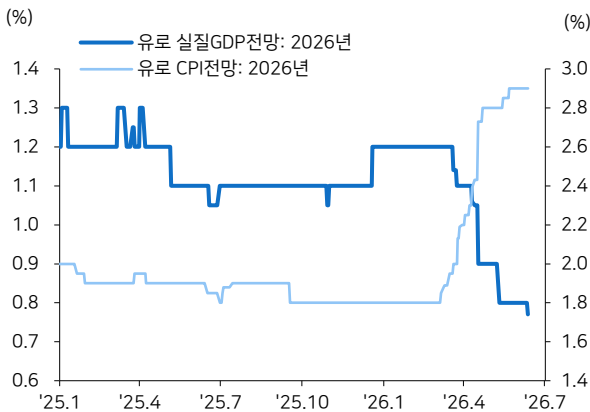
그림27 임금이라는 수요조건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



자료: US BLS, Fe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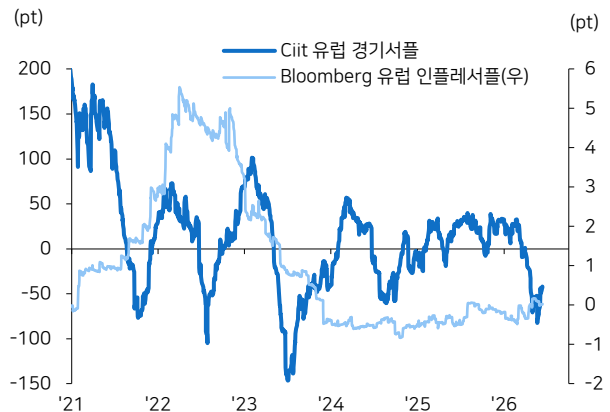
- 지난 주 유럽 ECB는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2.00% → 2.25%로 인상, 공급물가 충격이라도 기대인플레이 확산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확인
- 미국 연방금리 3.75%는 장기균형 3%보다 높은 수준인데 비해 유럽은 2.0%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중간 정도에서 다소 긴축의 필요성이 미국보다 높았던 것으로 판단. 자원취약국으로 물가안정에 좀 더 우선 순위를 두는 부분도 고려
- 그렇지만 올해 유럽 성장률은 연초 1.2%까지도 기대한 수준에서 0.8%로 다시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정도로 부담 증대(그림 28). 경기모멘텀 지수의 부진과 우려한 것보다 인플레이 모멘텀 상승이 강하지 않음(그림 29)
- 우리는 물가통제를 위해 9월에 ECB가 추가로 25bp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으나(그림 30) 올해 주요 선진국 중 장기금리가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은 이유가 성장을 희생한 긴축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춤

그림28 유럽 물가 우려 높아졌다고 해도 경기 우려도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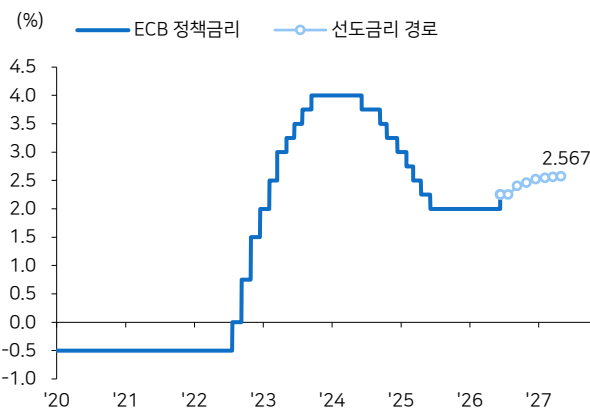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9 물가 모멘텀 반등대비 경기모멘텀 위축 심한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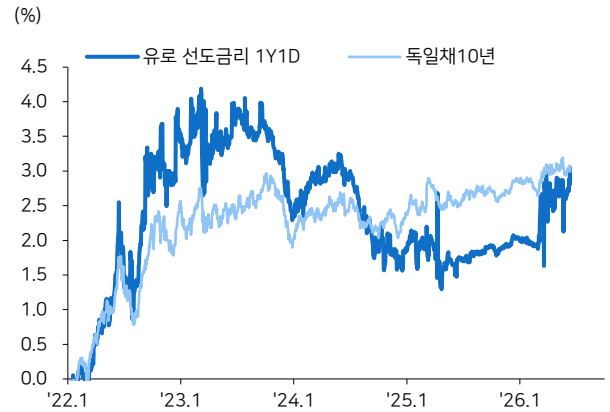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0 선도금리 2.5% 반영, 우리는 9월 추가인상 전망 유지



자료: ECB,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1 독일채10년 3% 내외 등락, 더 이상 부담은 없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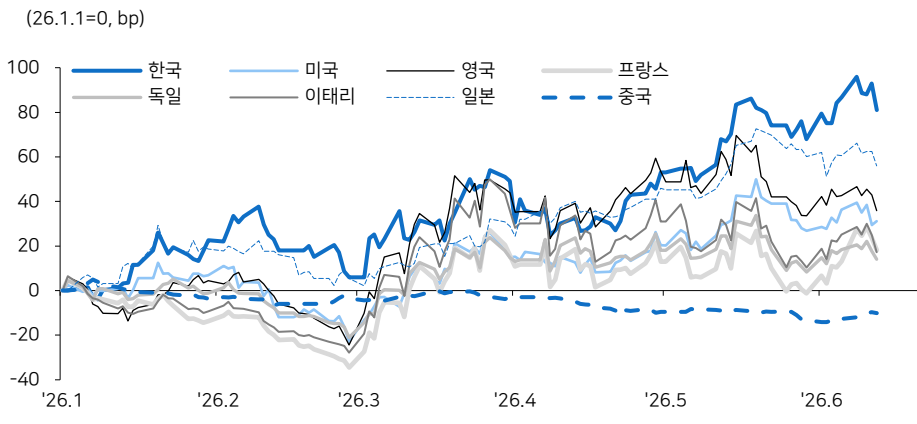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통화정책 과도한 긴축우려 완화, 기존 7월과 10월 인상 전망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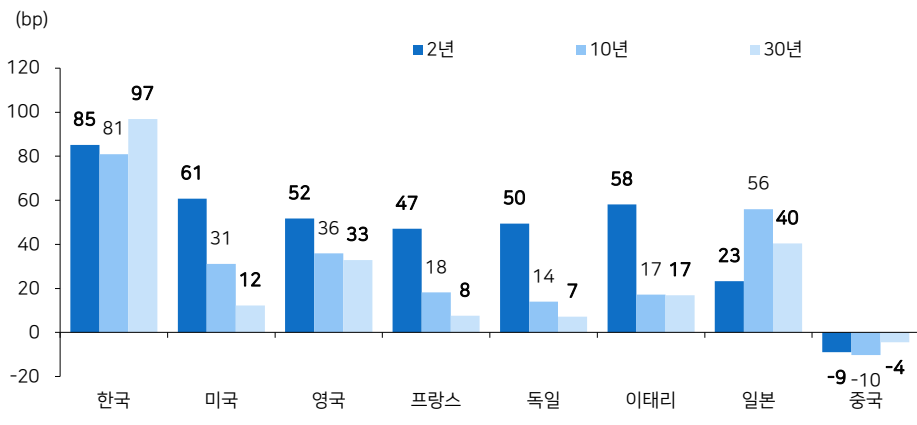
- 종전 기대로 미국채10년이 4.5%를 하회한 것에 힘입어 글로벌 채권시장이 다소 안정화되었다고 하나 한국은 올해 주요국 중 금리가 가장 많이 올라온 상황
- <그림 32>에서 보듯 금리인상을 단행한 유럽국가들보다 아직 인상을 실시하지 않은 한국금리 상승폭이 큰 상황.
- <그림 33>에서 일부 긴축이 진행 중인 유럽 단기금리가 50bp 정도 오른 반면 우리는 85bp가 급증, 통화정책 긴축 압력이 더 높음. 반면 실제 성장기대가 우리보다 제약적인 유럽의 경우 대부분 초장기금리 상승세가 10bp 이내로 낮았던 반면, 한국은 97bp로 금리상승 충격이 높은 편
- 일본과 영국의 초장기금리 상승은 재정신뢰성 약화와 관련성도 있지만, 국내는 성장률이 개선되고 부채비율 안정에도 초장기금리가 오르는 기현상

그림32 주요국 10년 금리연중 추이, 한국이 가장 금리가 많이 올라온 상황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3 한국 채권시장 약세는 건정성이 아닌 경기와 통화정책 기대에서 약세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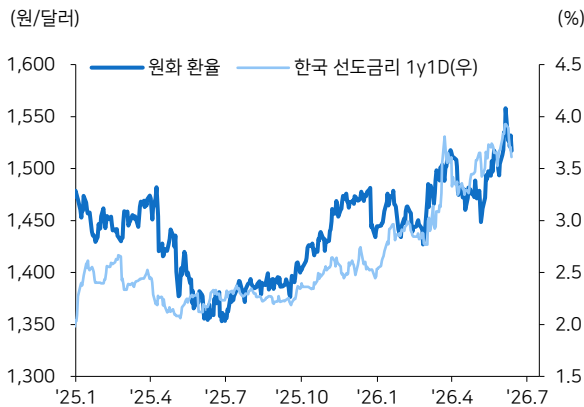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한국 전구간에서 금리상승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현재 100bp 가까운 기준금리 인상을 실시 원인이 물가뿐만 아니라 성장률이 같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 전쟁 발발 이후 주요국 중 성장률 전망이 상향된 국가는 반도체 수혜를 보고 있는 한국과 대만 정도이고 다수는 하향조정 중

- 여기에 지난 주 한국 통화정책 긴축압력을 높일 것이라는 루머의 원인이 된 환율 안정까지 수급적으로 국내 채권투자에 매우 불리한 상황. 전세계에서 주가지수가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다, 부동산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 한국은 통화긴축 및 투자의 기대수익률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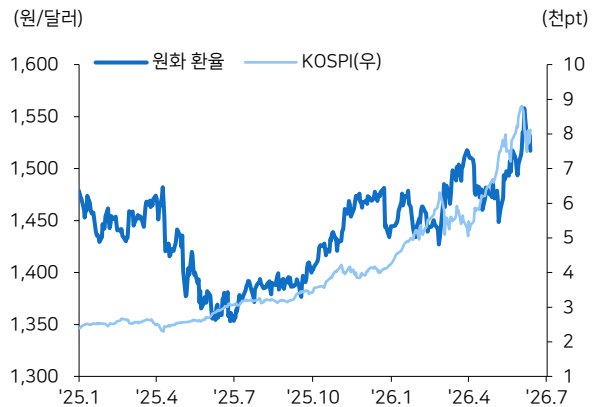
- 올해 막대한 초과세수 또한 우선순위로 부채상환보다 재투자를 통해 성장지원 가능성이 높게 평가됨에 따라 채권투자자 불안심리 높은 편. 그렇지만 정부의 안정조치로 원/달러 환율이 1,510원대까지 반락했고, 전쟁종료는 금융시장 변동성을 안정시켜 한은의 금리인상 경로를 기존 예측한 7월과 10월 연내 2차례로 한정시킬 가능성이 높아짐. 국고3년 3.8%와 국고10년 4.2% 균형 라인 제시

그림34 환율 안정, 선도금리 인상 우려도 큰 폭으로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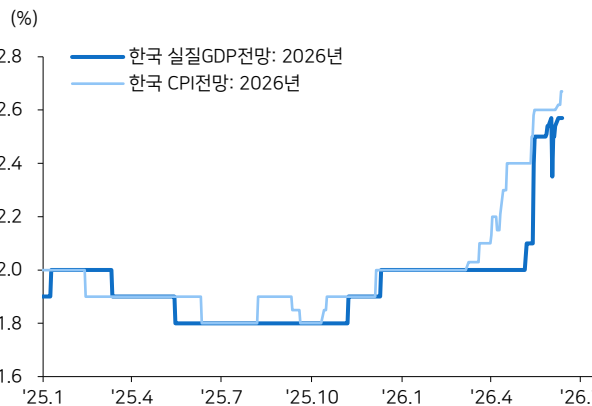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5 주가지수 변동성 축소가 환율과 통화정책에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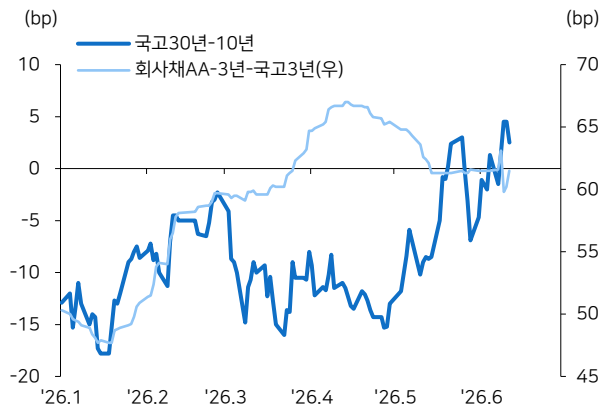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6 물가보다 성장률 개선 가세가 국내 채권투자 부담요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7 30년 금리 정상화와 크레딧 상대적 약세 주목해야



자료: 민평 3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이벤트 및 평가(6월 15일 주간)

- 종전 막바지 인식에 위축되었던 채권 투자심리 완화될 전망. 전주 ECB 인상에도 시장금리는 안정되었던 경험 감안. 금주 주요국 통화정책 결정에서 매파 기조가 강화되더라도 예견된 바, 금리 급등세가 연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 다만 신임 연준 의장의 RMP 관련 부정적 논조 가능성 등 변수는 존재

표1 금주 이벤트 프리뷰

일자	국가	이벤트	중요도	직전치	코멘트
6월 16일	일본	BOJ 금리결정	★★★	0.75%	25bp 인상한 1.00% 전망. 4월 회의에서 동결한 이유는 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아직 불명확했기 때문. 유가 상승 파급효과가 가시화되었으나, (+) Output Gap과 마이너스 실질금리 감안하면 인상은 수순. 6월에 인상 단행한 이후 다음 인상은 12월 예상
6월 16일	프랑스	G7 정상회담	★★	—	현지시간 17일까지 진행될 예정.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보여짐. 각국의 정상은 중동 전쟁 종식후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에 대해서 논의할 것
6월 16일	호주	RBA 금리결정	★★	4.35%	직전 세차례 인상 과정 속 실업률(1월 4.1% → 4월 4.5%) 등 경제둔화 신호 포착. 1년 기대 인플레이(4월 5.9% → 6월 5.5%)도 안정 흐름. 기대 인플레이를 계속해서 통제하고자 하겠으나 추가 인상에 대한 강한 신호는 부재할 것
6월 17일	미국	5월 소매판매	★★	0.5% MoM	세금환급 및 월드컵 특수로 헤드라인 지표 양호하겠으나 자동차 판매 약화 등 수요측 구매력 약화 단서를 확인할 필요. 주유소 판매의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실질 재화소비는 약화되는 중. 일각에서는 식료품 물가 상승세 둔화로 실질 구매력을 지지했을 가능성을 제기함
6월 18일	미국	FOMC 금리결정	★★★	3.75%	동결 전망하나 인플레이 경계감에 따른 점도표 연내 인하 횟수 0회 가능성이 우세한 상황. 인하 중위수 1회 유지시 오히려 긍정적. 한편 새로운 종류의 Core inflation 압력이 들어오면서 물가전망 추가 상향될 개연성 큼. 경제전망과 실업률 전망은 3월의 중위수가 대체로 유지. 워시 의장 기자회견은 변수. RMP와 인플레이 견해 관련, 쉽지 않아보이나 기존 통화정책 접근방식과 차별화될 시 변동성 유발
6월 18일	영국	BOE 금리결정	★★★	3.75%	인상 소수의견 속 동결 전망. 4월 이후 경제지표; 임금 상승세 둔화&헤드라인 물가 충격 제한적&4월 GDP 역성장 감안 6월에 당장 인상할 환경은 아님. 3월까지만 해도 가장 매파적 중앙은행이었으나 관망 기조 유지 예상. 경제 내 slack이 존재해 Headline 물가 충격이 쉽게 Core 충격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확산. 인플레이 압력이 큰 탓에 현시점 시장에서는 연내 1회 인상 반영 중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